

치 사

지난해 우리사회의 소중한 길벗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2년차를 맞아, 전통문화와 나눔문화로 거듭난 문화대축전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불교계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며,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교단을 쇄신하고 불자와 사회의 동참을 격려하며 이웃과 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 그간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한민국 문화대축전으로 거듭난 행복바라미에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책임자들의 각오에 더 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되며, 작은 몸짓,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기에 오늘의 초발심과 함께 모인 의지를 잊지 말고, 당장의 큰 성과나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어우러진 고마운 관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행복바라미’라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서로에게 행복이 고루 나누어져 모두의 마음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 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기2558년 4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